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한명기 지음, 서울: 역사비평사, 1999

서론

- * 책봉-조공 관계로서 명과 조선의 관계가 성립
- * 조선 초기 조선의 대명관계는 사대의 예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해가는 것이었으나 임란 이후 재조지은을 입은 후 종속적인 것으로 전락하여 명청교체기에 유연성 있는 외교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배경이 됨
- * 재조지은의 형성, 변형, 복구라는 관점에서 선조말, 광해군, 인조대의 조선의 대명관계를 살펴
-> 연속적이며 계기적인 입장에서 조명관계 서술함
- * (27) 필자의 의도 -> 병자호란 이후 조선사회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던 이른바 대명의리론과 북벌론의 사상적 연원이자 단초였던 '재조지은'을 숭상하는 관념이 임진왜란 시기 명군 참전을 겪으면서 형성되고, 광해군, 인조대를 거치면서 변형되고 원상복구되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함

제1부 임진왜란과 대명관계

제1장 명군 참전과 정치적 영향

~~제2장 명군 참전과 경제적 영향~~

~~제3장 명군 참전과 사회·문화적 영향~~

제1장 명군 참전과 정치적 영향

- * 명은 한반도가 왜에 점령될 경우 요동 등 중국 본토가 위태로워질 것을 생각하여 참전함
- * 조선은 가도입명(假道入明)을 요구하는 왜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명에 원병요청을 호소함
- * 그러나 명은 이러한 조선의 명분을 달가와하지 않고 조선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참전한 것이라고 주장함
- * 임란의 전개과정에서 명군은 명국 본토의 수호가 주목적이었으며 따라서 1593년 1월 평양 탈환 이후 2월 이여송이 벽제전투에서 패전하면서 강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함
- 전비조달과 재정적자의 문제

- 명군의 피폐한 군세과 염전의식

- * 이에 대해 일본의 완전한 축출을 원했던 조선은 강화론에 반대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6년까지 강화론이 지속됨 -> 이후 일본에 대한 봉공론자들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몰락하면서 정유재란이 등장함
- * 결국 명의 참전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을 구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자국의 안위를 위한 교육지책이었음
- * 이외에도 명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선조의 무능을 들어 왕위교체론, 직할통치론 등이 등장하였음
- * 강화론, 왕위교체론, 직할통치론 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명군의 군사력을 통해서 일본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은 명군의 주둔 하에서 정치, 군사적 간섭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음
- *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담론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재조지은의 담론은 향후 조선 내에서 명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화의식, 존명의식, 대명의리론의 토대가 됨
- * 그럼 임란중 명군의 횡포와 간섭이 일본만 못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조지은의 담론이 등장하고 이후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 조선이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명군의 참전이 조선을 구원했다는 생각이 선조 및 재조신료들 사이에 강했음
 - 또한 선조와 조선에 대해서 민심이 극단적으로 이반되었던 상황 속에서 명군의 존재는 (의병장들로 대표되는 재야신료의 역할이 폄하될 정도로) 왕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조선을 구한 명군지원을 요청한 선조 및 그의 신하들이 결국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재조지은의 담론은 선조와 재조신료들이 전쟁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수 있는 논리가 되었음
- * 명군의 참전 그리고 평양전투의 승리를 거치면서 “동쪽의 조선을 돕기 위해서 한판 벌인 전쟁으로서”의 “동원일역”(東援一役), '만력동원지역'(萬曆東援之役), '동사(東事)'와 이에 대한 조선의 재조지은의 화답은 17세기 초에 이르면 대명관계에서 조선의 일차적인 고려대상이 되었음
- ? 과연 이러한 담론이 이후 명-조선을 지배했는가? -> 광해군대에 이러한 재조지은은 그럼 왜 약화되었는가? 그래서 다른 설명을 해보자면 명의 군사력의 존재감과 반대로 이후 후금에 대한 명의 쇠퇴가 명-조선관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지는 않는가? 정보부족으로 여전히 명이 강하다고 본 신료와 북방의 정세에 나름 능통한 광해군과의 대립이 중요한 것 아니었던가? 재조지은 담론의 enduring power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제2부 광해군대의 대명관계

제1장 광해군 초.중반 조명 사이의 쟁점

제2장 대후금 출병문제와 대명관계

제3장 '심하전투' 패전 이후의 대명관계

제1장 광해군 초.중반 조명 사이의 쟁점

* 광해군의 왕세자 책봉과 선조 이후 광해군의 즉위에 대한 명의 인정이 매우 더디었고 이에 따라서 광해군은 불만을 나뉘 지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저자 한명기 교수의 추정) -> "(195) 요컨대 광해군의 책봉과 즉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명이 보였던 미온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광해군이 반명감정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러한 저자의 추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재조지는 애당초 선조만의 것이었을 수 있다
- 이후 후금에 비해 쇠퇴해 가는 명의 국력에 대한 광해군의 정확한 판단이 광해군대의 명-조선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일 수 있다

* 이성량의 조선병탄론

* 조선 은에 대한 명의 탐욕 -> 조선판 "광세의 폐"(曠世之弊) -> 조선은에 대한 명의 막대한 수거

- 사실상 은이 명의 본위화폐가 되었는데 재정악화, 해외로부터 은 유입(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한 중남미 은의 유입과 일본을 통한 은의 유입)의 감소로 조선에서 막대한 은을 약탈해 감 -> 임란 당시 피해자로서 조선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
- 광세의 폐(만력제가 태감을 보내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 조선에서도 나타나는 형상이 되었음
- 임해군이 즉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광해군은 이들 조사관들에게 은을 뇌물로 줌(요동도사 엄일괴, 자재주지부 만민애) -> 은뇌물의 일상화
- 광해군 책봉사 명태감 유용의 은요구

* 중강개시를 통해서 명상품의 고가 강매행위

- 중강개시에서 명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강매함
- 중강에서 징세를 통한 명은 은수입 증가효과
- 은징세의 대가 흡혈귀라 불린 태감 고희의 횡포
- 요동 아문들의 횡포

제2장 대후금 출병문제와 대명관계

* 원래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그 이전 요동총병 이성량의 후원 하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함

* 임란 당시 만주일대에서 세력을 강화하며 주변부족을 복속시킴 -> 점점 세력을 키워 1589년 자칭 왕이라 하고 1605년 여직국을 개명하여 건주국이라 칭함

* 건주여진의 누르하치의 성장으로 인해 조선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함; 특히 1607년 함경도 문암전투에서 해서여진 계통을 부족을 패배, 통합시키면서 이러한 위협이 커짐

* 광해군의 대 누르하치 정책

- 기미(견제와 동시에 우호관계유지), 자강(국방강화), 정보수집 및 기밀유지(여진의 통태파악 및 조선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함; 뿐만 아니라 명에 대한 정보도 늘 수집함 - 이성량의 조선병탄 시도에 대한 트라우마)
- 기미를 통해서 견제하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대북파의 주전론의 이중적인 태도(후금과의 일전결사를 주장하면서 서북으로 가는 것을 장수들이 피한다는 것)를 비판함-> 인조반정까지 지속된 기미정책-> 후금 역시 후고지우(後顧之憂)의 문제로 조선과 잘 지내고자 함 + 후금의 경제적 필요
- 동시에 군사적인 자강책을 마련하여 constant alertness를 갖추고자 함: 무기확보(화포개발과 이를 위한 화기도감의 설치; 염초 수급라인의 확보), 왜란을 경험한 인물들에게 방어를 맡김; 유사시 대비 강화도 강화

* 명의 원병요청 문제

- 1616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대금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완전히 명에서 독립하고자 함
- 재조지은을 명분으로 후금 공격에 대한 원병요청
- 이를 지속적으로 요령껏 거부하는 광해군과 재조지은 보답을 주장하는 비변사의 대립
- 광해는 외교사절을 통해서 피폐한 조선의 사정 등을 이유로 완곡히 거부하나 명의 경략사 양호가 이를 지속적으로 저지함
- 광해는 황제의 칙서를 받은 후 병력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후금과도 직접 충돌을 피하는 등 능란한 외교술을 구사함

* 왜 광해군은 출병을 거부했는가

1. 중립을 통한 전쟁예방
2. 조선과 출병을 요구해 온 요동아문 간의 갈등관계
3. 왕권의 수호 - 왕권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의 중단 가능성, 군대파견 이후 역모 발생 가능성, 재정부담으로 인한 궁궐사업(영건(營建)사업) 중단 -> 차서자로서의 수모와 이로 인한 정통성 시비에 따른 지속적인 불안이 있어 왕권유지에 전력

? 저자는 왕권의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보는 듯함(255) -> 쇠퇴하는 명세력에 비해서 성장하는 후금군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습득으로 인한 후금과의 충돌회피노력 혹은 전쟁방지의 목적 등은 부차적이었나? 이길 것으로 판단했으면 보내지 않았겠나? 재조지은이 이래도 지배담론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나?

* 심하전투의 패전

- 1619년 후금의 수도 흥경노성(興京老城)을 공격하려 하던 조선은 3월 후금군의 기습으로 패배 -> 강홍립의 항복
- 밀지설(투항예정설) VS 후금의 선강화제안설이 모두 광해군일지에 있고 이에 의거 일본학자 양인의 대립이 있음을 저자는 우선 언급
- 그러나 저자는 명군의 실체에서 강홍립의 실전에서의 선택으로 투항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
- 즉, 실제 명군과 조선군을 함께 볼 때 전체적인 심하전투 패전의 이유는 명군이 병기나 병력구성, 지휘체계에서 이미 약체였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이런 상황에서 군량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험로를 행군하여 지친 조선군이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
- 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 부차에서 9천의 조선군이 죽었다는 것을 볼 때 밀지설(투항예정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저자는 봄 -> 강홍립이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투항을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

제3장 “심하전투” 패전 이후의 대명관계

* 심하전투 이후 명의 조선관은 이원화됨

- 헌신했다 vs. 후금과 결탁할 수 있다
- 후금이 조선을 치고 해로로 명을 직접 공격할 수 있으므로 서광계 등의 조선감호론(일종의 군정)이 등장함
-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재징병론이 나옴

* 조선에 대한 명의 재징병 요구

- 요동이 후금에 장악되면 조선과 명은 분리된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 조선이 후금과 연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은화 등을 보내면서 특히 화기의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함
- 특히 만주일대가 후금에 점차 장악되면서 명은 더 초조하게 원병을 요청함; 조선과 명이 힘을 합쳐 후금에 대해서 기각지세(掎角之勢)로 공략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 다시 명은 재조지은을 내세움

* 조선은 재징병을 거부함

- 심하전투 이후 권한이 강화된 광해군은 조선이 후금에 일부러 항복했다는 점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함 -> 끝까지 싸운 김응하의 무공을 기림
- 거부의 이유로 조선이 출병하면 빈틈을 노려 조선북방을 후금이 공격할 것임과, 여진이 명의 동해안을 해로로 공격하지 않도록 조선이 평안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론함
- 오히려 조선이 심하전투에서 피해를 입어 가용병력이 없으니 명이 오히려 군대를 보내 조선의 입구(진강)를 지켜달라고 주장
- 즉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명이 나설 것을 주장하여 오히려 징병론을 사전에 제거함
- 이를 위해서 명에 대해 사신을 지속적으로 파견함 -> 이들 사신들은 명사행길에 명군을 상항을 수시로 보고함; (279) “(광해군은) 이미 황중윤 등의 건문과 보고를 통해 요동의 명군 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명의 재징병 요구)에 쉽사리 응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 모문룡과 요민의 유입

- 후금이 남만주를 지배하면서 요민들이 유입해 오자 후금의 송환요구로 인한 갈등가능성을 우려한 광해군은 이들의 출입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려함
- 이때 일시 진강을 탈환한 모문룡이 조선으로 들어와(1621) 북부에서 명사람들의 모으며 자 유자재로 왕래하여 광해군이 걱정하던중 마침내 우려대로 후금이 쳐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자 광해군은 모문룡을 철산 앞바다 가도로 가게 함

* 심하전투 패배의 조선국내에 대한 영향

- 백성들 사이에서 후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서북민이 동요함
- 전투를 위해서 곡물, 장병징발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정치적으로 원병파견에 반대했던 광해군의 입지가 비변사에 비해서 강화됨 -> 신료들에 대한 역공감행 -> 강홍립 가족징벌 요구일축; 후금에 대한 화친정책을 펼친 광해군은 우리에게 믿을만한 형세가 없는데 “견양(犬羊)을 어찌 의리로서 책망할 수 있겠는가?...과거 임진년에 일본의 서신에 답할 적에도 오늘의 논의와 똑같았기 때문에 다음해의 큰 변란을 부른 것이다. 전철이 멀리 있지 않은데 경들은 한갓 대의만으로 흉악한 오랑캐의 노여움을 건드리려 하는가”라고 신료들을 질책함(293) => 화이론 + 현실실리론

* 국내당쟁의 변화

- 1613 계축옥사, 1618 인목대비 폐출을 위한 정청庭請: 세자나 의정(議政)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큰일을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던 일) 등을 통해서 토역을 주축이었던 이이첨 등 대북파가 득세하였음 -> 광해군과 연합함
- 그러나 심하전투 이후 파병을 주장한 이이첨 md 대북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광해군은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인, 서인 등을 중용하여 이들과 외교정책을 논의함 -> 이이첨 등 대북파의 정치적 퇴조, 소북과 대북의 갈등, 서인과 남인의 재기 -> 인조반정의 원인이 됨

제3부 인조반정과 대명관계의 추이

제1장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본 인조반정 발생의 배경

제2장 인조반정 승인을 둘러싼 명과의 갈등

제3장 인조반정 이후 병자호란 이전의 대명관계

제1장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본 인조반정 발생의 배경

* 인조반정의 원인

- 폐모살제
- 궁궐영건 등 토목공사로 인한 민생피폐
- 후금과 화친정책으로 명을 배반함 -> 광해군의 대외정책은 군신의 의리를 배반한 행위

* 반정공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옳은가? 반론의 제기

- 광해는 후금을 비호하지는 않았다 -> 허풍으로 망하지 말자. 후금과 진정한 화친이 아니다 (310)
- 광해는 후금을 기미하려 했지 조선과 대응하게 보지 않았다 -> 이나바 이와키치의 광해군 “택민주의론” (광해군 시대의 만선관계): 그러나 이나바의 만선사관 및 청조옹호론의 문제 -> 광해의 원병거부는 청조의 건국에 기여했다 -> 청조의 발흥이라는 각도에서 기능적으로 광해의 외교정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봄

* 저자의 의견

- 광해외교의 장점 - 유연성: 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기미를 통해서 후금과의 전쟁을 방지함
- 광해외교의 뿌리는 명과 후금을 잘 관리한 선조에게서 배운 것으로서 임란당시의 경험이 바탕이 됨: 광세지폐를 거부한 명 김득시의 난 당시 선조가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던 것처럼....
- 광해군의 한계는 외교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영건사업의 지속 등 재정을 고갈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족을 적절히 대우하지 못한 것임; 재원을 조달하는 조도사의 작폐와 천인을 이들로 고용하여 사족에게 능멸감을 줌; 영건에 집착하여 광해는 금은을 받고 관직을 팔 -> 외교와 국내정치가 따로 놀았음